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10. 1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- 佛, 파리경찰청 흥기난동 사건 테러수사로 전환
 - 10.5 佛 대테러검찰청은 파리경찰청 흥기 난동사건(10.3)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관 가능성이 높아 테러수사로 전환했다고 발표
 - * 범인 「미카엘 하폰」은 이슬람교로 개종 후 극단주의 세력과 연락 지속
- 터키, 시리아 북동부 '평화의 샘' 작전 개시
 - 10.9 「에르도안」 터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“터키군과 시리아 국민군(SNA)이 연합, 시리아 북동부지역에서 쿠르드노동자당(PKK)과 쿠르드민병대(YPG)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했다”고 발표
 - * 10.8 군사작전에 앞서 쿠르드민병대(YPG)의 수송·보급로와 주요시설 공격

미 주

- 美, 살인·고문 자행한 ISIS 조직원 본국 이송 추진
 - 10.9 NYT는 인질 27명을 참수하고 포로들을 고문한 ISIS 조직원 2명을 시리아민주군(SDF) 수용소에서 이라크로 호송중이며 미국으로 데려와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보도

아 · 태평양

- 日 센다이 원전, 대테러시설 완성 못해 가동중지 결정
 - 10.4 NHK는 가고시마현 센다이 원전*이 항공기 충돌테러공격 등 테러대비를 위한 시설공사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가 제시한 '20.3월까지 불가능하다며 가동을 중지할 것이라고 보도
 - * '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'15년부터 재가동

- ISIS 연계 필리핀 반군, 수당 미끼로 이슬람계 조직원 포섭
 - 10.7 필리핀 마긴다나오주 경찰청장은 “방사모로이슬람자유전사단(BIFF) 등 ISIS 연계 반군들이 5만 페소(약 115만원)의 현금과 월 1만 페소(약 23만원)의 수당을 미끼로 어린 모로족*을 포섭하고 있다”고 언급
 - * 필리핀 남부 이슬람계 소수민족
- 印尼 장관, ISIS 연관 추정 괴한에 습격
 - 10.10 AFP는 인도네시아 반텐주에서 안보장관 등 3명이 괴한의 흉기공격으로 부상을 입었으며,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 2명이 ISIS 이념에 노출된 인물로 추정된다고 발표

중 동

- 이란-터키, 앙카라 회담서 안보협력 강화에 합의
 - 10.5 이란 현지언론은駐터키 이란 대사와 터키 내무부 부장관이 앙카라에서 회담을 갖고 향후 안보문제 및 테러와의 전쟁 등에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
 - * 터키는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産 석유 수입 지속
- 아프간군, 지역 탈레반 지휘관 등 5명 전투기로 폭격 제거
 - 10.6 아프간군 대변인은 “6일 북부 파리아프주에서 탈레반의 주지사 격인 지휘관을 포함해 무장요원 등 5명이 탄 차량을 발견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전투기로 공격하여 처단했다”고 발표
- 이라크, 민생고 해결과 부패척결 시위 격화로 혼란 가중
 - 10.6 로이터통신은 이라크 바그다드와 남부 시아파 거주지역에서 민생고 해결과 부패척결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으며 이슬람 무장세력 개입 의혹까지 더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
 - * 이라크 내무부는 6일간 104명이 사망하고 6,107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

터키 수도 앙카라 자폭테러('15.10.10)

- '15.10.10 오전 10:00경 터키의 수도 앙카라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역 앞 광장에서 폭탄 두 개가 폭발해 102명이 사망하고 400여명 부상
 - 당시 현장에는 터키 남동부에서 심화되고 있는 정부군과 쿠르드 반군간의 갈등에 맞서 평화행진을 준비하던 반정부 시위대* 수백 명이 모여 있어 큰 피해가 발생
 - * 쿠르드계 정당인 인민민주당 지지자들과 진보 성향의 노동조합연맹, 시민단체 등
 - 터키 앙카라에서 관공서가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처음 발생한 同 테러에 대해 「아흐메트」 터키 총리는 ‘터키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’이라고 언급하면서 사흘 동안 ‘국가 애도기간’ 선포
- 同 자살폭탄테러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없었으나
 - 터키 정보당국은 자살폭탄 방식으로 공격한 점 등으로 미뤄 테러 주체는 수니파 무장조직인 ISIS나 PKK 또는 극좌 성향인 혁명인민 해방전선(DHKP-C) 등 조직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

< 혁명인민해방전선(DHKP-C) >

- (목표) 무장혁명을 통한 터키내 공산주의 정권수립
 - * '97년 미국, '01년 영국, '05년 터키에서 테러단체로 지정
- (연계세력) 터키인민해방전선(THKP-C)
- (핵심인물) 무사 아소그루(지도자), 제린 사리(실질적인 지도자)
- (활동지역) 터키(이스탄불, 앙카라, 이즈미르, 아다나 등)
- (주요동향) ① '13.1 앙카라 소재 美 대사관 출입구 자폭테러(사망 1, 부상 3)
 ② '15.3 이스탄불 검찰청사 난입, 인질극 자행(검사 1명 사망)
 ③ '15.8 이스탄불 소재 美 총영사관 총기난사(인명피해 未발생)

